

EADS사 군사사업분야 개혁

EADS사가 유럽군용항공기사의 설립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방위 및 안보시스템 그룹의 설립과 함께 군사사업분야의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EADS사는 소위 유럽군용항공기사의 핵심으로서 군용기사업 추진을 모색해 왔었다. 원래 유럽군용항공기사는 이탈리아 항공산업체와의 합작사로서 의도된 것이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번의 새로운 구조조정은 5개 부문의 사업단위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미사일시스템, 군용기, 센서 및 전자, 방위 및 안보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등이다.

방위 및 안보시스템 그룹의 사업범위에 관해서는 EADS사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군용 수송기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스페인의 EADS-카사사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신설된 방위 및 안보시스템 그룹은 톰 앤더스가 이끌게 될 것이며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으나 군용기사업부나 시스템사업부에서는 무인기와 무인전투기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 그룹의 세부적인 조직과 구조는 곧 EADS사에 제출될 계획이다.

ICAO, 초대형 항공기가 공항에 미치는 영향 검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항법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가 에어버스 A380 초대형 민항기를 포함한 NLA(신형 대형 항공기)가 주요 국제공항의 유도로나 활주로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영향검토 보고서의 초안에 의하면 주요 국제공항이 이 초대형 항공기를 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간격이 좁은 평행활주로를 비롯한 몇몇 시

설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와 공항의 관계자들은 초대형 여객기의 개발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ICAO측이 초대형 항공기와 공항시설에 관한 지침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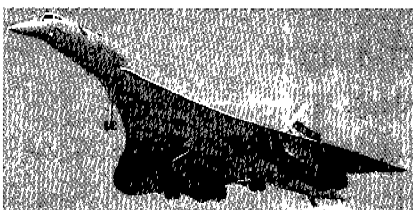
항공항법위원회(ANC)는 관련된 보고서를 재검토 후 ICAO의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단계로 된 계획서가 작성될 것인데 여기에는 주날개 밑에 4대의 엔진을 장착한 A380 초대형 민항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guidance)과 공항설계 기준의 수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라질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비유지비가 금년말 이전에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의 운항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브리티시 에어웨이(BA) 항공사가 언급하고 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에어프랑스 항공사와 공동으로 100석급 초음속 콩코드의 운항을 각각 5월 31일과 10월 31일을 기해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A 항공사의 운항부장인 콩코드 기장 마이크 베니스터는 에어프랑스사와 BA 항공사 및 부품공급업체인 에어버스사간의 3자 회담이 개최된 바 있으며, 이 회담에서 에어버스는 향후 수년간 콩코드의 정비비가 항공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4천만파운드(6천2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에어프랑스사는 콩코드의 정비비가



72%나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소수의 항공기에 특별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써 조종실의 강화된 보안출입문을 설치하는데 보잉사제 항공기의 경우 대당 25,000달러가 소요되었으나 콩코드기의 경우는 40만달러가 소요된 점을 들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 있었던 콩코드기의 사고는 승객의 감소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라크전 또한 거듭되는 승객의 감소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MHI사, 일본의 리저널기 개발 주도

미쓰비시 중공업(MHI)사가 일본 정부와 항공산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일본의 리저널기 연구,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될 예정이다. 5개년에 걸쳐 5백억엔(4억 2천만달러)이 투자될 이 연구, 개발(R&D)사업은 일본 업체들이 30~90인승의 국산 리저널기의 제작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후지 중공업(FHI)사는 MHI사에 이어 이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두번째의 계약업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사키 중공업(KHI)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제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KHI사는 이 리저널기의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전망에 회의적이며 현재 엠브레어 170 계열 리저널기의 주날개를 제작,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KHI사의 국산 리저널기 사업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국산 리저널기 사업에 관한 제의서는 일본의 경제, 무역산업성에 4월 30일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MHI사와 FHI사는 사업의 업무지분에 관해 협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협상결과에 따라 공동 또는 별도로 제의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한 이 리저널기에 장착될 엔진개발의 가능성 연구를 위해 우선 1개년 예산으로 2천5백만엔을 책정하고 있다.

비밀에 붙여진 일본 정찰위성의 궤도

일본이 3월 28일 자체의 H-2A 발사체를 사용해 발사한 일본 최초의 두 정찰위성의 궤도 데이터에 관해 미국 정부가 일찍이 없던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83년 이래 자체의 정찰위성의 궤도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 왔으나 미국 것이 아닌 군사위성의 궤도 데이터는 항상 발표해 왔었다.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광학영상위성과 영상레이더 위성 등 일본의 두 정찰위성은 고도 약 490km(304마일), 적도로부터의 경사각 97.4도인 비슷한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 비록 이 정찰위성의 궤도는 공식적으로는 비밀에 붙여져 왔으나 지상에서 시각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북한의 기술진이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캐나다의 군사우주 분석가인 테드 폴크잔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이 정찰위성의 태양동기궤도가 같은 지방시에 지구상의 어떤 지점 상공도 통과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이용해 어떤 추적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정찰위성은 매일 평양 상공에 근접해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1시 19분 그리고 오후 10시 30분과 오전 00시 28분(이상은 지역시간임) 사이에 통과하게 된다. 만약 북한측이 이 두 시간의 기간중 육지에서 활동을 금지한다면 위성으로부터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고 폴크잔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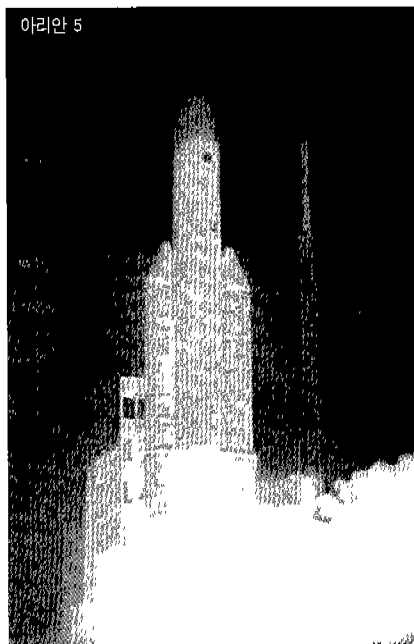
미국의 선진형 KH-11 정찰위성이 일본의 정찰위성과 거의 비슷한 궤도면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은 이미 그 시각

대에는 활동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새로운 통과비행시간을 설정해 위성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지만 북한의 기술진은 간단한 시각추적방법을 사용해 그 시각을 다시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우주프로그램 유럽화

프랑스 정부가 유럽우주기구(ESA)의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는데 합의했으며 발사체의 기술개발 책임을 프랑스 우주기구인 CNES에서 ESA로 이전하는데 합의하는 한편 화성샘플 수집사업의 책임도 ESA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아리안 스페이스사와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 우주정책과 CNES(프랑스 우주기구)의 역할에 관한 포괄적인 재판단에 따른 것이며 작년 12월에 있었던 개량형 아리안 5ECA 발사체의 발사실패에 자극된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과 과학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등이 포함된 프랑스의 고위급 우주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며 그 구



아리안 5

체적인 내용은 차기 CNES의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학부장관이 이번에 승인한 대책 중에는 프랑스의 ESA 프로그램 지원금을 현재의 연간 6억 4천만유로에서 2003년 9월까지 6억 8천5백만유로로 증액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추가되는 지원금의 대부분은 아리안 5ECA 발사체의 발사재개사업과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 우주기지에 소유즈 발사체용의 발사장 건설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셔틀 내년 3월까지 임무수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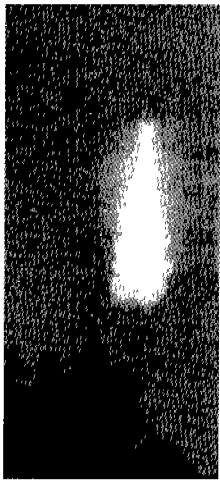
임무비행 중단상태에 있는 스페이스 셔틀의 비행임무 재개가 2003년중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NASA측이 판단하고 있으며 우주비행임무 재개시 처음으로 비행할 STS-114 애틀랜티스호의 임무는 빨라도 2004년 3월 이전에는 수행되지 못할 것으로 스페이스 셔틀 및 ISS 프로그램 부장인 마이클 코스텔니크는 언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 재진입과정에서 공중분해되어 추락한 콜롬비아호의 참사결과로 앞으로 매 스페이스 셔틀의 임무시마다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 밖 작업(EVA)을 통해 스페이스 셔틀의 외부를 완전히 검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임무가 될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호의 사고조사위원회는 발사 상승도중 스페이스 셔틀의 외부탱크에서 떨어져 나간 거품절연체의 가격으로 T 씬(T-Seal)이 상실된 것이 좌측 날개의 과열로 기체가 공중분해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일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고원인과 경위는 계속 조사중에 있다.

인도 지구정지궤도 위성발사체 시험 성공

인도가 추력 1백50만파운드인 3단 추진식 지구정지궤도 위성발사체(GSLV)의 두번째 시험을 5월 8일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무게 3,600파운드의 시험용 통신위성을 궤도에 진입



시켰다. 이번 발사성공으로 인도의 우주연구기구는 이 GSLV 발사체를 상업위성발사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 발사체는 아시아 국가에서 제작된 가장 강력한 발사체 중의 하나이며 높이 161피트, 1단 엔진의 추력이 80만파운드인 이 GSLV는 4개의 액체추진제 스트랩은 부스터(부착식 로켓)를 갖고 있다. GSLV의 3차 시험은 자국에서 개발한 극저온 상단 엔진을 사용해 내년엔 발사예정인데, 이 자국산 상단 엔진은 현재 사용중인 러시아제의 상단 엔진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에 안전하게 지구정지궤도에 진입한 GSAT-2 위성은 4개의 C 밴드 및 2개의 Ku 밴드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고 있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 변경

미 육군이 이라크전 초기단계에서 입은 AH-64D 아파치 헬기의 전투손실에 자극받아 전술을 변경했다고 미 육군 5군단의 지휘관인 윌리엄 스콧 윌레이스 중장이 언급했다. 윌레이스 군단장은 작전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에 따라 전술을 조정했으며, 아파치 공격헬기는 여전히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전

쟁중 널리 보도된 바 있듯 한 대의 AH-64D 아파치 헬기가 지상 포화에 의해 격추되었고, 편대내의 거의 모든 아파치가 손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 육군측은 이라크군의 대공포들이 헬기의 침입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소구경 무기에 대한 AH-64D 아파치 공격헬기의 취약성은 미 육군의 전술에 관해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미 육군의 새로운 정찰·공격헬기인 RAH-66 코만치 헬기의 미래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에 위기감을 초래케 한 사태는 중부 이라크의 카르발라 근처에서 임무수행차 출격 한 32대의 아파치 공격헬기 중 31대가 피해를 입고 귀환했으며, 1대가 격추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X-45 무인전투기 대형화 추진

보잉 X-45B 무인전투기 프로그램이 해군과 공군의 양측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정되고 있다. 그 결과 DARPA(방위선진연구사업기구)가 요구하는 UCAV는 X-45C 비행날개형 설계가 될 예정인데, 이 무인전투기는 행동반경이 1,100~1,300nm(약 50% 증가)로 확대되고 폭탄과 정찰 센서의 탑재량이 4,500파운드로 증가될 계획이다.

경쟁적인 이유로 인해 보잉사는 이 UCAV의 조종면의 설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특히, 해군형은 낮은 착륙속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 발생한 중동지역과 기타 지역에서의 분쟁은 기존의 설계보다 더 긴 항속거리와 전장 상공에서의 체공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잉사의 X-45C 프로그램 책임자인 대릴 데이비스는 말하고 있다. 두 대의 X-45B UCAV를 제작하려 했던 이전의 계획은 취소되었고 보다 큰 새로운 설계의 UCAV 개발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스파이럴 I (Spiral One) 시범프로그램은 2006년말까지 1년 연장될 것이며, 최초의 공군용 시범기는 2006년 중반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보잉사는 해군용 두 대와 공군용 한 대 등 3대의 시범기를 제작하게 될 예정인데, '해군형(UCAV-N)'은 구조가 강화되어 공군형의 요구조건도 충족시키게 될 전망이다.

폴란드, F-16 전투기 48대 구입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48대의 F-16 블록 52형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폴란드의 3개월간에 걸친 구매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양측은 35억달러 규모의 절충교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록히드 마틴사는 약 60억달러 이상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정의 효과는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 폴란드측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게 될 것으로 록히드 마틴사의 관계자는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는 최초로 레이시온사의 AGM-145 합동 스탠드오프 미사일(Joint Standoff Missile)의 수출고객이 될 계획이다. 레이시온사는 최근 폴란드가 새로 구입한 48대의 F-16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최소한 150발의 AGM-145 미사일의 구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미·영국군 이라크 전쟁의 교훈 분석·처리에 착수

이라크 전쟁에서 철수한 미군과 영국군이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배운 교훈의 분석·처리에 착수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심적인 고려사항에는 새로운 무기와 기타 시스템의 성능문제와 전술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사용된 새로운 무기에는 영국 공군이 사용한 MBDA사의 스톰새도우 미사일과 미 공군이 처음으로 사용한 텍스트론사의 CBU-105 센서신관 분산형 폭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국 공군은 레이시온사의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과 강화형 페이브웨이 레이저유도 폭탄 등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이 무기는 1999년의 코소보 분쟁 이후 구입한 것들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배운 교훈에는 작전분야는 물론, 군수분야와 지원분야 등 전쟁의 모든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군, 이라크전에서 30억달러의 무기사용

미군이 약 한 달에 못미치는 이라크 전쟁 기간중 약 30억달러에 상당하는 무기를 사용했다. 미 해군은 한 발의 가격이 1백만달러 이상인 레이시온사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만도 800발 이상을 사용해 이 대지공격순항미사일의 재고가 크게 감소되었다. 미 해군성의 조달담당 차관보인 존 영은 미 의회의 증언에서 전술항공기의 도달거리 밖에 있는 표적공격과 악기상으로 인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대한 의존도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언급했다. 재고보충을 해야 할 미사일은 이미 1발당 60만달러의 가격으로 초기저울생

산(LRIP)에 합의한 새로운 블록 IV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추가방위예산에는 미사일 생산증가에 대비한 보충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록히드 마틴사가 새로 개발한 AGM-158 JASSM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1발당 40만달러의 가격으로 LRIP(초기저울생산)중에 있으며 4월부터 인도되고 있다. JASSM 미사일은 그간 여러번에 걸쳐 시험에 실패해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3월에 최종개발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저울생산에 들어갔으며 7월까지 작전시험을 끝내고 11월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거리 200km(110nm)의 AGM-158 JASSM은 9월부터 B-52H 폭격기에 실전용으로 장착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B-1B 폭격기와 F-16 전투기 및 B-2 폭격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미 해군의 F/A-18E/F 전투기는 이미 4월부터 JASSM을 장착하고 있고 사거리 270km인 거리연장형의 개발도 금년 후반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ADS, A400M 첫 판매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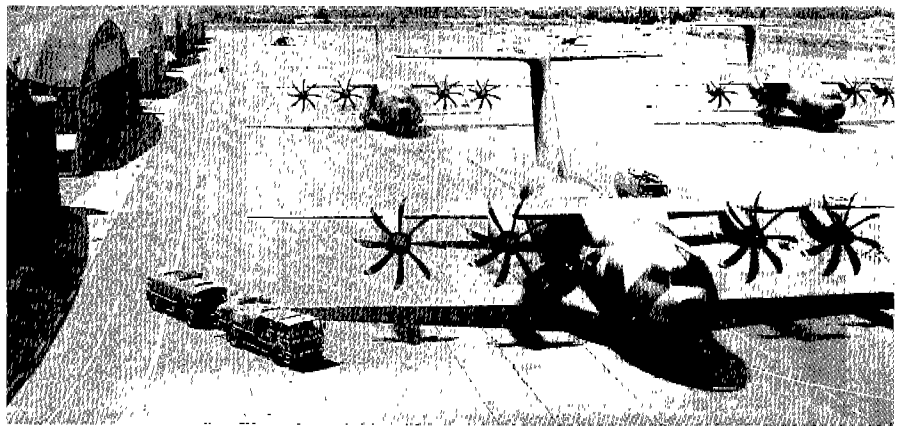
EADS가 유럽 7개국과 수주액 2백억유로(한화 약 3조 9천6백억원)에 해당하는 군용 수송기 A400M 프로그램의 첫 판매 계약을 마쳤다. EADS는 지난 5월 27일 독일 본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터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획득국(OCCAR)과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EADS의 군수 부문 수주액은 2백억유로에서 4백억유로로 2배 뛰어올랐으며, 수주액 기준 세계 3위 군수업체로 발돋움했다.

EADS의 공동 CEO 필립 까뮈와 라이너 에트리히는 "A400M 프로그램의 시작한 민수부문의 집중을 막고, 민·군수사업 간 균형을 맞추려는 EADS의 전략에 중대한 업적"이라며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ADS는 이 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총 180대를 인도하게 된다. 국가별 인도 대수는 독일 60대, 프랑스 50대, 스페인 27대, 영국 25대, 터키 10대, 벨기에 7대, 룩셈부르크 1대 등이다. 유럽은 걸프전과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수행중 병력과 무기, 장비 등 군용 수송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A400M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한편 미 의회와 유니티티드 테크놀러지사(UTC)는 에어버스 밀리터리사에서 개발중인 A400M 유럽형 차세대 수송기의 엔진으로 EADS사가 프랫 & 위트니 캐나다(P&WC)사제 엔진 대신에 EPI(유로프롭인터내셔널)사제 엔진을 선택한데 대해 격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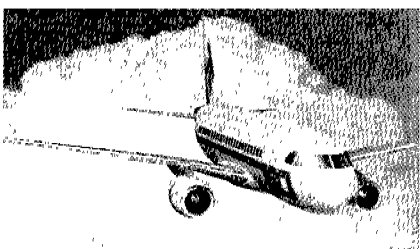
미 의회와 UTC사는 에어버스가 이전
에 P&WC사의 PW180 터보프롭 엔진이
EPI사제 엔진보다 20% 정도 더 저렴하다
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번 엔진선택이 가격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PI사제 TP400-D6 터보프
롭 엔진선택은 이미 긴장상태에 있는 미국
과 프랑스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항공우주 분야의 무역전쟁 재연과
보복조치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러시아, 새로운 리저널제트 개발사로 수호이사 선정

러시아의 국가우주기구인 로사비아코
스모스사가 새로운 러시아의 리저널제트
(RRJ)기로 투폴레프 Tu-414 리저널기와
미야시스체프 M-60-70 리저널제트를 제
치고 수호이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의 리
저널제트를 선택했다. 이 RRJ의 컨소시
엄에는 보잉사와 일류신사 및 야코블레프
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보잉사는 보잉 상용기사의 앨런 멀
랄리 사장과 AVPK 수호이사의 미하일 포
고시안 사장이 3월 초에 워싱턴주 시애틀
에서 장기적인 RRJ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RRJ 사업에 참여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이 RRJ 입찰은 50인승 투폴레프 Tu-
324 여객기의 확대형인 70~80인승의
Tu-414 리저널기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Tu-414 리저널기는 이미
러시아 정부로부터 12억루블(약 3천8백
만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투폴레프사는 이 리저널기가 이
미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 진전되었음을 로
사비아코스모스에 로비한 바 있다.

2002년 10월 RRJ 컨소시엄과 러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면 RRJ 컨
소시엄은 2006~2015년간에 예상되는
개발비 38억루블 중 23억루블은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측이 15억루블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
로 정부는 제트엔진 개발을 위해 2003~
2015년간에 20억루블을 배정할 예정인데
엔진 총개발비는 48억루블로 추산된다.

수호이사는 55인승 RRJ-60과 75인승
의 RRJ-75, 95인승의 RRJ-95 등 3개 유
형의 RRJ기를 개발할 계획이며, 각각의
유형은 기본형과 장거리형으로 개발될 예
정이다. 75인승의 RRJ-75기는 2007년 1
월 취역할 목표이다. RRJ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의 RRJ기 수요가 630대에 이
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CIS(독립국가연합) 수요 150대가 포함되
어 있다.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이미 30
대의 RRJ 구입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무인전투기에 관한 장기계획 발표

미 국방부가 2010년까지 치명적인 공
격능력과 전자공격능력을 갖춘 무인전투
기(UCAV)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
직임은 새로 공개된 무인기 계획의 일환으
로 발표된 것이며, 미군이 개발할 향후 25
년간의 우선순위 10위권에 드는 무인기를
열거하고 있다. 이 계획서는 보다 향상거
리가 긴 보잉 X-45C 무인전투기가 미 공
군과 DARPA(방위선진연구사업기구)가
개발할 UCAV 시험기의 중심이 될 것임
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초의 스파이럴 1
무인전투기는 2005년 후반기에 비행할

계획이다. 미 공군은 X-45A 시험기의 비
행을 선호해 X-45B 시험기의 프로그램을
취소했으며, 2010년까지 36대의 보다 능
력이 우수한 UCAV 시스템 전개에 필요
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미 공군과 해군은 미래의 UCAV
가 확대된 체공능력과 침투능력 및 고도로
정확한 센서능력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
고 있으며, 양군은 금년 후반에 있을 합동
프로그램의 계획수립에 앞서 각군의 요구
조건을 긴밀히 조율할 예정이다.

영국 공군, 스톱새도우 순항미사일 이라크에서 최초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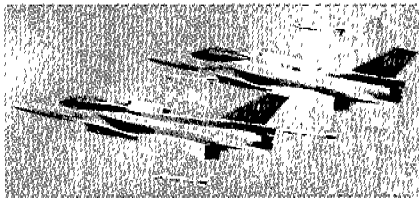
영국 공군이 스톱새도우 대지공격 순항
미사일을 계획된 실전배치일자보다 앞서
이라크전에서 토네이도 GR4 전투기를 이
용해 사용했다.

영국은 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비교적 소
수만 생산완료한 상태이며, 이 미사일을
서둘러 2월 중순에 중동지역에 배치했었
다. 원래 스톱새도우 미사일은 훨씬 이전
에 실전배치될 계획이었으나, 탄두와 관련
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배치시기가 늦추어져 왔다. 스톱새도우 순
항미사일은 개전 첫 주중에 최소한 16발
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은 이
미사일과 함께 잠수함 발사식 토마호크 순
항미사일을 3월 21일에서 22일의 초기 공
격기간중에 바그다드시 정보사령부 등의
목표에 대해 발사했다.

영국 공군은 스톱새도우 미사일과 함께
강화된 페이브웨이 II 유도폭탄을 해리어
GR7 수직이착륙 전투기용으로 최초로 배
치했다. 이 페이브웨이 II 유도폭탄은
GPS 보조유도장치를 이 폭탄의 레이저유
도장치에 복합시키고 있다.

컨포멀 탱크 장착형 F-16 전투기 첫비행

컨포멀 연료탱크(CFT: Conformal Fuel Tank)를 장착한 최초의 양산형 F-16C/D 전투기가 비행했다. 그리스 공군은 컨포멀 연료탱크를 장착한 선진형 블록 52형 F-16 전투기의 최초 고객이며, 피스 크세니아 III 프로그램에 따라 60대의 선진형 F-16 전투기를 발주했다. 동체 상부의 양측에 길게 설치된 두 개의 CFT는 모두 1,750리터(450갤런) 또는 1,390kg(3,060파운드)의 연료를 탑재가능하다.



보잉 AH-64D 공격헬기 생산라인 폐쇄 경고

보잉사가 AH-64D 아파치 헬기의 판매 부족으로 이 공격헬기의 생산라인을 2006년 후반부터 15개월간 폐쇄하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아파치의 생산라인이 폐쇄될 경우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아파치 헬기의 후속인 블록 3 업그레이드 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보잉사는 501대가 생산될 미 육군의 AH-64D 블록 1/2의 마지막 헬기를 2006년 7월에 인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블록 3 개량예산이 2004~2005년에 배정된다고 해도 최초의 블록 3 개량형 아파치 헬기는 2007년 10월까지 인도할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생산라인 폐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잉사는 신제품 아파치 헬기를 최소한 35대 더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월 3대씩 생산해 생산라인

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아파치 헬기 현대화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래리 플래스터는 기타 대안으로서 추가로 A형을 D형으로 개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애리조나주의 메시에 있는 공장에서는 80대의 AH-64 헬기를 생산했으며, 2003년에는 약 65대를 생산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생산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국제적인 판매의 잠재성은 400대를 초과할 것이며, 그 중 약 120대는 A형을 개조하는 것이다. AH-64D 헬기의 후속 판매협상은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및 이랍 에미레이트 연합 등과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치 헬기의 새로운 판매사업이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및 대만 등과 추진되고 있다.

유럽 전투기사업의 초점, 무인기로 전환

차세대 전투용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01년 10월 유럽 6개국에 의해 시작된 유럽기술획득프로그램(ETAP)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미국 주도의 JSF(합동 공격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그 초점을 무인기로 변경했다.

프랑스 조달기구인 DGA의 이브스 글라이즈스 청장은 ETAP가 계속되고 있지만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 이제 관심을 UAV와 무인전투기(UCAV)로 변경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DGA의 한 간부는 "현재 우리가 연구중인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라팔 전투기나 그리펜 전투기 및 유러피어 전투기 이후에도 과연 유인전투기가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라이즈스는 ETAP가 중점을 두고

있는 기타 분야가 엔진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인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팔콘 레이더 판매에 반대

3대의 이스라엘제 팔콘 공중조기경보(AEW) 레이더시스템의 대 인도판매를 놓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것으로 본다는 미 정부측 입장을 알게 된 이스라엘 국방부측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소식통은 지난 3월 하순에 이런 미 정부측의 비공식적인 암시(hint)가 이스라엘 국방부측에 전달되었으나 이스라엘과 인도간의 팔콘 AEW 시스템 판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요구는 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 팔콘 시스템의 판매협상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최근에 이 AEW 레이더를 탑재할 일류신 IL-76 수송기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는데 러시아와 합의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이 인도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팔콘 AEW 시스템은 3년 전에 IAI(이스라엘 항공산업사)가 중국에 판매하려다 미국의 반대로 판매저지된 팔콘 AEW 시스템보다 더욱 개량, 발전된 형이다. 당시 IAI사는 중국에 대한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3억 5천만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강요받았다. IAI사는 인도군용 팔콘 AEW 시스템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팔콘 시스템의 주센서인 레이더는 보다 더 장거리 표적을 탐지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자정보 및 통신정보 센서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